

‘지역기업 전력요금 차등화’ 등 지역발전 해결책 머리 맞대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與, 차등전기요금 도입 적극 검토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 여부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 따라 논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최고위원, 김주영 국회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원이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지난 9월 한미관세협상 타결 전 만나 기업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날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의는 7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 문제 해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방



정청래(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전력 시스템, 지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하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소멸돼 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 한다”며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런 국가소멸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좋고 또 국가는 또 지역 소멸 위

기를 극복하는 데 좋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전기 문제를

두고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분산에너지법 45조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상의가 침체된 태양광 생태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과 상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권 대변인은 “(이 외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고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드려서 불확실성을 걷어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탈모·비만 약물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민의힘, 지방선거 앞두고 위기감 분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李 대통령, 3년 전 공약 다시 꺼내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 고민해야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주문
건강보험료 특사경 인원투입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으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기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영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

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조 단위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긴 수사 기간을 틈타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해 징수율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 목표다.

/서예진 기자 syj@

재선·초선의원 모임서 목소리
당 지도부 투쟁우선 기조 ‘비판’
국민 마음 읽은 전략·설계 필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린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장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책임’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져나옴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 초중반에 정체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안과책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건의하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목표에 나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어디로 향해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을 한 마디로 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점이 국민이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것이다. 저쪽은 신나서 내란몰이에 몰두하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박상웅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박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우선하는 초선 모임”이라고 말했다. 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오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깥에 오해가 생길 거 같아 빠른 시일 내 낱을 잡아 당 안팎의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임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의 의원은 모임 시작 전 기자들에게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